

“팬들과 함께 한 2024 시즌 행복했습니다”...광주FC, 9위로 리그 마무리



광주FC 선수단이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리그 최종전을 마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는 이날 전북과의 경기에서 후반 30분 전북 티아고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후반 추가시간 신창무가 페널티킥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서 K리그1 잔류를 확정지은 광주는 9위로 리그를 마무리했다. 광주는 오는 2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선화를 상대로 ACL 스테이지 5차전을 치른다. /광주FC 제공

안세영, 세계 1위 ‘그 실력 그대로’ 파리올림픽 금 이후 첫 국제대회 우승

중국마스터스 여자 단식 가오팡제 완파하고 정상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기분하게 정상에 섰다.

안세영(세계 랭킹 1위)은 24일 중국 선전의 선전아레나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가오팡제(28위)를 2-0(21-12 21-8)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32강, 16강에서 랏차녹 인타는(태국·18위), 쑹쉬인(대만·24위)을 2-1로 이긴 안세영은 8강부터 장이만(중국·23위), 미야자키 도모카(일본·24위)를 차례로 2-0으로 제압해 결승 무대를 밟았다.

마지막 상대 가오팡제마저 2-0으로 꺾은 안세영은 부상만 없다면 마땅한 적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유의 물샴 틈 없는 수비력으로 연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24일 열린 중국마스터스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가오팡제를 상대로 경기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거푸 가오팡제의 범실을 유도해 1게임 을 21-12로 잡은 안세영은 2게임 한 때 19-6까지 달아나는 등 더욱 압도하며 낙승을 챙겼다.

이번 중국 마스터스는 안세영이 금 메달을 딴 파리올림픽 이후 두 번째로

나선 국제 대회다.

한편 덴마크 오픈 결승에서 안세영을 꺾은 세계 랭킹 2위 왕즈이(중국)는 이번 대회에서는 16강에서 가오팡제에게 0-2(16-21 18-21)로 완패해 일찌감치 발길을 돌렸다. /연합뉴스

‘만점 도움’ 손흥민, 맨시티 격파 선봉

토트넘, 맨시티 4대0 대파

EPL 66번째 도움 기록 토트넘 역대 1위 ‘눈앞’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이번 시즌 ‘4호 도움’을 작성하는 맹활약으로 페르 파르디올라 감독 체제의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잉글랜드)에 공식전 첫 5연패의 굴욕을 안겼다.

토트넘은 23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맨시티를 4-0으로 대파했다.

전반 13분에 나온 제임스 매디슨의 선제골로 앞서간 토트넘은 손흥민의 날카로운 패스 덕에 7분 만에 추가 골을 넣었다.

토트넘이 전방 압박 끝에 공을 빼앗자 페널티지역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맨시티 수비진의 허를 찌르는 침투 패스로 문전으로 쇄도하던 매디슨의 득점을 도왔다.

올 시즌 손흥민의 네 번째 도움으로 지난 3일 애스턴 빌라전(4-1 승) 이후 2경기 만에 쌓은 공격포인트다.

손흥민은 올 시즌 3골 4도움을 기록



손흥민이 23일(현지시간) 열린 EPL 12라운드 맨체스터시티와 원정 경기 전반 20분 자신의 도움으로 팀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킨 제임스 매디슨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중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EPL에서 어시스트 66개를 쌓았다. 이는 역대 토트넘 선수 가운데 2위 기록이다.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올린 선수는 대런 앤더튼이다.

축구 기록·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앤더튼은 EPL에서 어시스트 68개를 기록했다.

토트넘 구단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집계를 보면 앤더튼의 기록은 67개로, 약간 다르지만 어느 쪽 집계든 손흥민이 올 시즌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빛고을 시민 한마당 축제’ 제36회 광주시민체육대회 성료



24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광주시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북구선수단이 강기정 광주시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정희환 북구체육회장과 우승기를 들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종합우승 ‘북구’, 대회 4연패 위업

빛고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제36회 광주시민체육대회’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3일 사전 경기로 김도(서석중·고체육관), 야구(북구종합운동장), 축구(보라매축구장) 종목이 자치구별 대항전으로 치러졌고, 24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시민 1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경기(한마음 계주, 단체 줄넘기, 계란 릴레이, 슈퍼볼 굴리기 계주, 풍선기동 릴레이)가 펼쳐져 축제 한마당을 연출했다.

각 구별 장기자랑에 이어 광주 대표

에어로빅팀과 줄넘기 시범단의 시연 공연으로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흥겨움을 더했고, 최근 광주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구 가족센터와 다문화 가족들도 참가해 함께 나누고, 즐기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화합 경기와 종목경기 등에서 선전한 북구가 차지 했다.

북구는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준우승은 광산구가 이어 동구, 남구, 서구가 각각 3위-5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빛고을체육관에는 2025세

계양공선수관대회 홍보를 위한 포토존과 양궁체험부스가 운영됐고, 시민체육진흥센터에서는 건강관리부스, 협약병원과 한의원에서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동호인들과 다문화 가족들 모두가 하나된 시민체육대회가 시민체전으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체육문화를 만들겠다”며 “광주시체육회는 건강 100세 시대, 건강한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유수영·최동훈, UFC 입성

‘로드 투 UFC’ 뱅텀급·플라이급 각각 우승

유수영(28)과 최동훈(25)이 세계 최고의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 무대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유수영은 지난 23일 오후 마카오 갤럭시 아레나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양 vs 피게이레두’ 경기에서 벌어진 ‘로드 투 UFC’(RTU) 시즌3 뱅텀급 결승에서 바일경 제라이스(28·중국)에게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RTU는 아시아의 종합격투기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UFC 사무국이 꾸준히 여는 대회다.

RTU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UFC와 계약할 기회를 준다.

별명이 ‘유지수’로 그라운드 기술에 능한 유수영은 3라운드 내내 일방적으로 상대를 그라운드에서 압박해 승리

했다. 부상 3명 가운데 2명은 30-27, 나머지 1명은 29-28로 점수를 매길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였다.

앞서 플라이급 결승전을 치른 최동훈은 더욱 화려한 경기로 UFC 계약서를 거머쥐었다.

최동훈은 키루 싱 사호타(29·영국)를 맞아 1라운드 2분 36초에 KO승을 따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에게 파고드는 전략을 택한 최동훈은 강력한 오른손 후크로 사호타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평소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는 최동훈은 승리 직후 옥타곤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짱구 춤’으로 자축해 눈길을 끌었다.



UFC에 입성한 유수영(왼쪽)과 최동훈. (UFC 제공)

최동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패턴으로 훈련해왔다. 적극적으로 KO를 노렸다”며 준비한 대로 경기가 풀린 것에 기뻐했다.

이로써 RTU 우승으로 UFC에 진출한 선수는 시즌1 박현성(플라이급), 이정영(페더급), 시즌2 이창호(뱅텀급)에 이어 유수영과 최동훈 5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